

# 민주당, 비명 '외연 확장'... 친명 '내부 단속'

##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내 '반(反) 이재명계' 행보가 주목된다.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게 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비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면, 당권을 여전히 이재명계가 쥐고 있는 만큼 '이 대표 중심의 위기 돌파'에 대한 당내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8일 정가에 따르면 최근 김동연 지사가 적극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독일 출장 중 현지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와 회동하는 등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총선 이후 도정자문위원장에 전해칠 전 의원을 위촉하는 등 낙선·낙천한 비명·친명계인계를 경계도에 두루 영입하기도 했다.

호남 인사 영입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광주·전남 정가에 몸담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김 지사 진영에 합류했고, 추가 인선을 위해 김 지사 측근의 호남 방문도 찾아지고 있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호남에 대한 김 지사의 애정이 남다르고, 김 지사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호남인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안팎에 귀국해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지사는 오는 12월께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정권 교체 이후의 한미 관계와 동북아 안보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한 달가량 더 머무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친문·호남인사 영입 나서  
김경수, 내년 1월 귀국 정치 행보  
김부겸, 미국 방문 마치고 귀국  
친명 최민희 의원 극단 발언  
민주 지도부 "당 차원 입장 아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미국과 캐나다를 3주 일정으로 방문,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집권 후의 한국 경제 및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귀국했다.

하지만 "비명계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의 권력을 대부분 친명계가 잡고 있으며, 원내에 비명계 조직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친명 진영의 집안 단속도 본격화 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관측과 관련해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 현장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라며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위기가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사분오열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해당 발언을 두고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덕수 국무총리(맨 왼쪽)가 18일 목포 신항면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풍력발전기 적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총리, 신안 해상풍력 1단지 찾아 "관계부처 긴밀 지원하라" 김영록 지사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남 이전, 수도권 1극체제 극복"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상풍력 1단지 전남도를 찾아 올해 준공을 눈앞에 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배후 부지인 목포신항을 둘러보고 산업계와 지자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이날 전남해상풍력1단지의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한 뒤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오는 2025년 상반기 상반기 상운전을 앞둔 신안군 일대 전남해상풍력 1단지를 둘러보고 관계부처에 긴밀한 지원 조치를 강구토록 지시했다.

이날 시찰에는 한 총리를 비롯, 김영록 전남지사,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남재현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추경용 SK이노베이션 E&S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 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대 100MW급 규모(9.6MW 풍력기 10기 총 96MW)로, 민간 자본 48조 원이 투입되는 전남해상풍력발전단지 중 우선 조성된다. 전국적으로 상업 운전 중인 단지가 모

두 발전 공기업을 주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단지는 최초의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으로 9000억원을 투자해 추진된다.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인 CIP가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전남해상풍력발전단지는 26개 단지에 8.2GW(기가와트)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 조성된다. 이는 1.4GW급 한국형 원전 6기와 비슷한 규모다. 목포신항은 국내 유일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향후 해상풍력 부품 공급업체 등이 입주하는 배후단지도 조성될 계획이다.

또 해안 화원조선산업단지에는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향후 12만개 이상의 일자리

가 창출될 전망이다.

한덕수 총리는 "해상풍력 활성화는 에너지 안보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고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긴밀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해상풍력의 메카 전남이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한편, 전력계통 부족 문제 해결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전력계통 안정과 더불어 수도권 1극 체제까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목포대·순천대 통합 합의, 각계 환영 성명 잇따라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상생하는 대학 통합 합의와 도민 화합을 이끄는 통합의대 설립 추진을 200만 도민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30년 넘는 오랜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가장 이상적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양보와 상생의 결정을 이뤄낸 순천대 이병운 총장과 목포대 송하철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영했다.

도의회는 "이번 합의는 의료 공백의 고통과 원정 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모두가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의대를 설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민 삶을 중심에 둔 이번 결정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오는 2026년 통합 의대가 개교할 수 있도록 도의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도 허정 위원장 명의로 환영문을 내고 "통합의대 설립은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 모두가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도 "두 대학의 합의는 지방 소멸 위기의 파고를 넘는 전남 모든 시·군에 나아가야 할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도 "이번 합의는 이대가 없는 전남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전남도의 노력으로 목포대와 순천대가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하며 합의에 따른 전남도의 요청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간담회를 갖고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2026학년도 통합의대 개교'를 위한 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동·서부권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정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명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www.kwangshin.ac.kr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